도내 학생선수 785명, 소년체전 참가

25~28일 전남 일원서… 金 19개 등 총 80개 메달 목표

전북자치도교육청, 전략종목 특별훈련 등 10억여원 지원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오는 25~28일 사흘간 전남 일원에서 개최되는 '제53회 전국소년체육대회'에 도내에서는 35개 종목, 785명의 학생 선수가 참가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소년체전에서는 전국 17개 시·도 선수단 1만8,000여명이 출전, 총 36개 종목에서 열띤 경쟁을 벌인다.

이날 전북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대회에서 전북은 금메달 19개를 포함한 총 80개의 메달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전북은 기록종목의 육상, 체급종목의 역도·유도·레슬링, 단체종목의 축구·농구·배구 등에서 강세를 보이고 있다.

사전경기로 진행된 체조 종목에서 금 3, 은 3, 동 1개를 획득하며 순조로운 출발을 보였다.

특히 전북교육청은 지난해 12월부터 동계 강화훈련비, 전략종목 특별훈련 등 10억여 원의 훈련비를 지원, 전국소년체전 참가선수들의 경기력 향상을 도왔다.

한편 지난해 울산에서 열린 제52회 전국소년체육대회에서는 35개 종목, 738명이 출전해 금메달 22개, 은메달 16개, 동메달 30개를 획득했다.

서거석 교육감은 "한국체육의 요람이자 역사인 전국소년체전에 참가하는 전북대표선수단을 기쁜 마음으로 응원한다"면서 "도내 체육영재들이 마음껏 운동하고 공부하면서 자신의 진로를 찾아갈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도내 교육지원청 교육장 공개 모집

9월 1일자… 내달 7일까지

2024년 9월 1일자 교육지원청 교육장을 공개 모집한다.

22일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에 따르면 이날 누리집에 9월 1일자 교육장 임용후보자 선정을 위한 추천계획을 공고했다고 밝혔다.

지원 자격은 현직 교장, 장학관, 교육연구관으로 1년 이상 재직한 사람이다.

지원 희망자는 직무수행계획서(교육지원청 운영계획서), 주요 활동 실적을 포함한 자기소개서 등을 작성해 오는 6월 5일~7일 오후 12시까지 도교육청 교원인사과로 제출하면 된다.

다만, 징계의결요구 중인 사람과 징계처분 말소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 주요 4대 비위자(금품?향응수수·상습폭행·성폭행·성적조작)는 말소기간 경과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이 제한된다.

주요 심사영역은 △교육자 소양 △직무수행능력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조직관리역량 △교육철학 및 소통역량 △전북교육 핵심정책 추진역량 등이다.

한편 전북교육청은 6월 11~14일 공개검증과 온라인동료평가를 진행, 6월 18일 서류 및 면접심사를 거쳐 6월 21일 최종 임용후보자를 확정·발표할 예정이다.

서거석 교육감은 "교육장은 지역교육 발전의 원동력이 되는 중요한 자리"라면서 "전북교육청의 핵심정책을 역동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참신하고 민주적 리더십을 갖춘 분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바란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나에게 우애란?'

하토야마 유키오 전 日총리, 27일 전주대서 특강

전주대학교(총장 박진배)는 오는 27일 오후 2시 스타센터 온누리홀에서 하토야마 유키오 일본 前 총리 초청특강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날 특강에 관심 있는 사람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하토야마 유키오 전 총리는 2023년 전주대학교에서 명예박사 학위를 받았다. 이번 특강은 전주대에서 명예박사학위를 받은 후 처음 진행되는 행사로 관심을 모으고 있다.

'나에게 우애(友愛)란' 이라는 주제로 진행되는 이날 강연은 한국과 일본의 학문·문화적 교류가 활발히 일어나길 기대하며 추진됐다.

특강 외에도 환경문제에 대한 일본어 그룹 토론대회, '나에게 우애란' 주제의 소논문 콘테스트 및 우수작 선정을 통한 상장·장학금 지급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박진배 총장은 "이번 특강을 위해 바쁜 일정 중에도 우리 대학을 직접 방문하는 하토야마 유키오 일본 전 총리에게 감사 인사를 전한다"며 "학생들의 학문적 호기심을 고취하고, 새로운 시야를 제공하는 좋은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하토야마 유키오 전 총리는 일본 93대 총리를 지내며 일본의 정치뿐 아니라 환경문제 등 국제사회의 다양한 이슈에 대한 정책과 대응을 주도했다. 특히 한일 관계의 균형 잡힌 역사관으로 양국 관계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며 동아시아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고 있다. /장은성 기자

원어민 화상영어 홈클래스, 반응 뜨겁다

1기 도내 초중고생 178명 참여

신청접수 시작한지 하루 만에 조기 마감됐을 정도로 큰 인기

2기 신청 내달 10일부터 진행

원어민 화상영어 홈클래스 화면 캡처. 〈사진=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제공〉

원어민 화상영어 홈클래스가 학생과 학부모의 뜨거운 호응 속에 진행되고 있다.

22일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에 따르면 4월 15일부터 6월 14일까지 9주간 진행되는 2024년 제1기 원어민 화상영어 홈클래스에 도내 초·중·고교 학생 1,780명이 참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접수를 시작한 지 하루 만에 조기 마감됐을 정도로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이는 학생들의 실용영어 능력 신장과 글로벌 마인드를 함양하고, 학부모 사교육비 부담을 덜어주고자 지난해부터 운영되고 있다.

한편 전북교육청은 1기 신청이 큰 호응 속에 마무리됨에 따라 추가 예산을 확보해 올해 총 6,600여 명의 학생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수강 인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2기 신청은 6월 10일부터 진행된다.

서거석 교육감은 "지난해 처음 도입한 원어민 화상영어 홈클래스는 현장의 높은 만족도와 호응속에 올해 더 확대할 계획"이라면서 "학생들의 영어 의사소통 능력을 높여 자신감을 키우고, 세계 시민과 소통할 수 있는 미래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전북특별자치도교원단체총연합회는 지난 21일 오후 글로스터호텔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교권 회복 위한 사회 인식 개선 '중점'

전북교총, 글로스터호텔과 업무협약 체결

전북특별자치도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오준영)는 지난 21일 오후 글로스터호텔(회장 노종호)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는 교원의 복지 증진과 더불어, 사회적으로 교사를 존중하는 인식을 조성하는데 중점을 뒀다.

이날 협약식에는 전북교총 오준영 회장과 송지환 수석부회장, 김윤범 부회장, 김동철 정책연구소장, 그리고 글로스터호텔 노종호 회장과 최정환 총지배인, 글로스터 임직원 등이 참석했다.

이날 협약에 따라 글로스터호텔은 전북교총 회원을 대상으로 연중 숙박비, 식비, 연회장 이용에 대한 특별 할인을 제공하며, 매년 스승의 날을 맞아 다양한 이벤트를 마련하기로 협약했다.

오준영 회장은 "이번 협약으로 전주에 더 많은 선생님들이 찾아오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글로스터호텔의 차별화 된 시설과 서비스 제공으로 선생님들이 교육현장에 더 집중하는 풍토가 조성될 것"이라고 말했다.

노종호 회장은 "글로스터호텔은 전주, 제주, 청주, 인천 등 전국적인 호텔&리조트 사업 망을 갖춰 가고 있다"면서 "교육의 힘이 대한민국의 미래인 만큼 앞으로도 교원의 사기 진작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글로스터호텔 전주 최정환 총지배인은 "최근 어려운 학교 상황을 고려해 호텔을 찾는 선생님들이 사회적으로 존경받고 있음을 느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장은성 기자

교수들이 직접 고교 방문… 전북대 '찾아가는 UNI4U 특강'

올해 55개 강좌로 대폭 확대

도내 32개 고교 대상 27일까지

전북대학교(총장 양오봉)는 오는 27일부터 '찾아가는 UNI4U 특강'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는 각 전공 교수들이 직접 고교 교육현장을 방문, 고교생들의 궁금증을 해소해 주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고교 교육현장에서 진로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지난해 29개 강좌에서 올해 55개 강좌로 대폭 확대했다.

첫날인 27일에는 반도체과학기술학과 김희대 교수가 전북과학고를 찾아 전공 분야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전달할 예정이다. 이후 의학, 간호학, 컴퓨터인공지능학, 화학공학, 전자공학, 행정학, 국제인문사회학, 철학 등의 전공 교수들이 순차적으로 고교 현장을 방문한다.

한편 이번 프로그램은 도내 32개 고교 4,700여 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전북대학교(총장 양오봉)는 오는 27일부터 '찾아가는 UNI4U 특강'을 실시한다. 사진은 지난해 도내 어느 고교 학생들을 진행된 찾아가는 UNI4U 특강.

주호종 입학처장은 "교수들이 직접 고교생들을 만나 전공 분야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해주면서 지난해 이 특강이 큰 반향을 불러 일으켰다"며 "전공특강뿐 아니라 고교와 지속적으로 연계해 고교생들의 진로활동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전주기전대, 성인학습자 고려

유아돌봄교실 서비스 운영

전주기전대학은 성인학습자를 고려한 '유아돌봄교실' 서비스를 운영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야간 및 주말 강좌를 수강하는 육아 병행 재학생들이 학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교내에 자녀를 위탁하는 프로그램을 말한다.

송미진 교수는 "학습 공백 기간이 긴 특징을 가진 성인학습자의 학교 적응도를 높이기 위한 주도적 학습법, 평생학습지도 교수제, 멘토멘티제 등 다방면의 학교 적응 프로그램을 적용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5살 해진이의 씩씩한 목소리가 공부하러 가는 엄마에게 큰 힘이 된다는 박새로미(허브조경과 2년)씨는 "교내에 자녀를 위탁한 후 안심하고 수업을 들을 수 있는 유아 돌봄 서비스가 있어 감사하다"고 소감을 전했다.

조덕현 부총장은 "성인학습자 비율이 점점 증가하면서 우리 대학의 학사 운영 방식과 학생 지원체계에도 많은 변화가 필요하다"며 "앞으로 다양한 연령대 만학도들의 요구를 수렴해 재학생들이 만족스런 대학 생활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겠다"고 강조했다. /장은성 기자

국립군산대, 올 고교-대학 연계 미리가는 연구실 개최

7월 22일부터 8월 2일까지

국립군산대학교 호남제주권역전북지역R-WeSET사업단(단장 화학공학과 김석순 교수)이 전북지역 일반계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7월 22일부터 8월 2일까지 '2024년 고교-대학 연계 미리가는 연구실'을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

'미리가는 연구실' 프로그램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지원하고 호남제주권역전북지역R-WeSET사업단이 주관하며, 일반고와 대학이 연계하여 연구·실습·토론·소논문 작성의 단계를 거치면서 논리적이고 창의적인 사고 능력을 향상 시키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국립군산대학교 이공계열 분야 23개 연구실, 25개 강좌를 운영하고 총 125명의 참여자를 모집하고 있다. 연구실당 4~6명 내외 학생이 팀을 이뤄 5일간 직접 연구에 참여하고 결과 분석 및 연구 보고서를 작성하는 등 심화 진로탐색의 기회를 갖는다.

주제로는 △전기차 냉각기 부품 만들어 보기 △자율주행 원리 이해 및 필요한 기술 탐구 △오존을 활용한 수처리 연구 △쌀가루를 첨가한 건면의 제조 및 이화학적 실험 △바이오소재를 활용한 신약개발과정 알아보기 △뇌과학과 인공지능의 융합 △항생제 사용이 토양 환경 내 항생제 내성균 증가에 미치는 영향 연구 △스마트 건설을 위한 자율주행, 딥러닝 연구 등을 기획하고 있다.

'미리가는 연구실'을 통해 지역 내 참여 학생들의 창의적이고 진취적인 사고 능력 및 타인과 소통하는 능력을 향상시킬 것이며, 폭 넓은 진로 선택의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호남제주권역전북지역R-WeSET 사업단은 여중·고생을 대상으로 하는 찾아가는 실험실, 커리어트래블, GEW를 운영하며 여대생을 대상으로 하는 WISET J-리더스, 여성과학기술인 융합 특강, 지역 핵심 산업 현장실무 SKILL UP 교육 등 전북지역 이공계 여성 인재 육성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미리가는 연구실'의 참여 신청은 23일부터 31일까지 호남제주권역전북지역 R-WeSET사업단(wiset@kunsan.ac.kr)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군산=이재춘 기자

전주매일 홈페이지
www.jjmaeil.com

아동 대상 인성·한자능력신장 프로그램 운영

전주교육문화회관, 미미지역아동센터와 협약 체결

전주교육문화회관(관장 이현규)은 지난 21일 미미지역아동센터와 방과후 프로그램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두 기관은 이번 업무협약(MOU)을 통해 찾아가는 학생교육 프로그램 운영협력과 상호기관의 사업 활성화를 위해 서로 협력해 나갈 예정이다.

특히 5월부터 초등학교 저학년을 대상으로 바른 인성교육과 한자능력신장을 위한 「인성쑥쑥 한자쑥쑥」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부수 지도를 통한 한자 원리 이해, 급수별 선정 한자를 개인별 맞춤 학습 지원을 통해 자기주도 학습 능력 성장과 바른 인성 함양을 기대하고 있다.

미미지역아동센터장은 "한자교육을 통해 학생들에게 한자급수 취득까지 이어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현규 관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미미지역아동센터생들의 인성교육의 기틀을 마련하고, 더불어 한자교육을 통해 기초학력을 신장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